

#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출신 창업 생존율 끝까지

지난해 10월 기준 생존율 분석  
지역 5개 권역 중 최하위권  
을 지역 특화산업 위주 육성  
내달 6일까지 1035명 모집

■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생존율  
(직영기관 5곳 비교, 단위: %)

	2년차	1년차
1 충남	90.7	경기 94.4
2 경남	88.2	경북 93.0
3 경기	87.2	경남 92.6
4 경북	86.1	충남 91.9
5 광주	84.8	광주 85.3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시 북구 장등동 호남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전국 17개 기관은 오는 2월6일까지 입교생을 모집한다. 최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열린 '청년 창업 우수상품 초대전'.

광주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창업 1~2년차 생존율이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2년차 창업자(2016년 창업)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생존율은 84.8%로, 중진공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5개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권역 중 충남 생존율이 90.7%로 가장 높았고 경남(88.2%), 경기(87.2%), 경북(86.1%)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 생존율은 87.3%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배출한 300명 창업자 가운데 262명이 지난해까지 휴폐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39명이 2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셈으로, 생존율은 전국 평균보다 2.5%포인트 뒤졌다.

광주는 1년차 생존율도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 지난 2017년 창업한 473명 가

운데 현재 지난해까지 영업을 이어온 창업자는 437명으로, 평균 생존율은 92.4%였다. 광주 생존율은 85.3%로, 경기(94.4%)·경북(93%)·경남(92.6%)·충남(91.9%) 보다 뒤떨어졌다. 하지만 광주지역 3년차 창업자(2015년 창업)의 생존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었다. 3년차 광주 생존율은 91.7%로, 경북(86.2%), 경기(81.2%), 충남(71.8%), 경남(67.7%) 등 5개 권역 보다 높았다. 전체 평균 생존율은 80.2%(252명 중 202명)로, 광주지역에서는 33명의 졸업생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6년차 광주지역 생존율은 66.7%(6년차), 52.9%(5년차), 76.3%(4년차) 등으로 전국 평균 생존율을 밑돌아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차별로 창업자 생존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만의 특별한 산업구조와 외부적인 경기 요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늘리고 배정된 인원의 30%는 광주 광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위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진공은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인원을 지난해 1000명 보다 소폭 증가한 1035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할 방침이다. 지난해 광주시 북구 장등동 직영기관과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민간운영사는 각각 65명과 50명을 선발했다. 올해 모집 규모는 개교 이래 최대인 1035명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동시 선발한다. 올해엔 4차산업 등 제조 혁신 분야의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과 문화 콘텐츠 관련 업종을 모집 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청년창업사관학교

는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졸업 후 성장을 위한 연계 지원까지 지원한다. 현재까지 3815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고 총 2조 6588억원의 매출을 이끌었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사무공간과 시제품 제작 관련 장비 인프라, 창업 교육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입교 희망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선발된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민간운영사 12곳도 이달 28일까지 공모한다. 대상은 중진공이 운영하는 5개 직영을 제외한 곳으로 서울, 경기 북부,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제주 등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 창업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한때 히트를 쳤던 동명의 의학드라마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방송 용어로 골든타임은 황금시간대를 말하지만 의학용어로 골든타임 일명 골든아워는 외상을 입었을 때 내외과 치료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말한다. 이 글의 제목에 붙인 골든타임은 의학용어적 관점의 골든타임이며 자칫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에도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골든타임과 그 골든타임대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창업에서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 일명 창업 성패의 골든타임은 단계로는 총 3단계, 기간으로는 총 9개월을 꼽을 수 있다. 1단계는 창업 준비단계로 개업 전 창업 준비기간 3개월이고 2단계는 개업단계로 개업 이후 3개월이며 3단계는 활성화 단계로 개업 이후 4개월~6개월까지 3개월이다. 개업 전 3개월의 준비기간이 1단계 골든타임인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섬세한 창업준비가 부실하거나 소홀하면 경쟁력이 빈약한 채로 창업을 하면 실패확률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개업 후 3개월의 기간이 2단계 골든타임인 이유는 과거 오픈 후 3개월 정도의 개업효과 속직 오픈빨이 나오는 기간이 최근 SNS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가 정보교류 속도가 빨라짐으로서 1개월 정도로 짧아진데다 개업 초기에 준비된 운영전략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아 고객유치와 매출을 일정 수준 이상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장기적인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이다. 개업 이후 4개월~6개월까지의 3개월이 3단계 골든타임인 이유는 2단계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면 더 높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해 더욱 더 매출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단계이고 만일 매출이 안정화 되지 못했다면 3단계에서 빠른 속도로 다양한 고객니즈를 조사, 분석 후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변화와 마케팅 전략을 적용해 고객들의 발길을 유도에 매출을 활성화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단계별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지 못해 가장 많은 실패사례로 꼽히는 프로세스는 1단계에서 부실한 준비를 하고 2단계에서 고전한 창업자가 3단계 과정까지 전략적으로 실패하면 대부분 운영비의 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기 십상이고 대부분 이 시점에서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듯 각각의 단계는 서로 연결돼 맞물려 있기에 각 단계별로 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의 핵심요소는 경쟁력 있는 점포개발, 섬세한 단계별 운영전략 및 차별화 전략 수립, 역량 있는 직원구인,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경쟁점포 분석, 효율적인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꼽을 수 있다. 2단계 핵심전략은 제품(메뉴) 및 고객서비스 품질 강화,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안정적인 고객관리, 실용적인 이벤트, 상시 고객니즈 조사 및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3단계 핵심전략은 고객니즈 재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한 새로운 변화요소 추출 및 반영, 활성화전략 수립 및 적용, 매출 다각화 및 홍보마케팅 다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대개의 예비창업자들이 3~6개월 이내의 운영비만 확보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놓고 보면 결국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이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비창업자들이 1단계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게 되는 것이다. 3단계의 골든타임 중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1단계인 준비단계를 꼽게 된다. 준비단계가 부실하면 더 이상 성공을 위한 창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창업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 '초기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40곳 신규 모집

29일~2월11일까지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도울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40개가 올해 신규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9일부터 2월11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을 신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관기관은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민간기관도 지원할 수 있다. 단 기업의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규모는 40개 기관 내외이며 호남권(광주·전북·전남) 6곳 등 8개 권역별로 나눠 모집한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지역 내 초기창업 기업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규모는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지원 자금 17억원과 성장 유도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 등 연 23억원 내외다. 특화프로그램은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및 서비스 실증검증, 투자연계, 기술보호,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글로벌 성공벤처 '팁스' 300개 팀 육성

중기부, 올해 1951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투자 유치를 받으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창업팀 300여 개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0년 팁스(TIPS) 창업팀 지원계획 통합 공고'를 발표하고 올해 우수한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신규 '팁스'팀 300개 발굴·육성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투자(운영사)를 활용해 창업팀을 선발하고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성공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1951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는 민간투자자와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나눠 프리팁스(Pre-TIPS) 30개, 팁스(TIPS) 300개, 포스트팁스(Post-TIPS) 4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팁스'팀은 연중 수시로 지원할 수 있으며 '프리팁스'는 오는 2월·5월·9월, '포스트팁스'는 5·6월·10·11월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